

생태학적 변인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from on Ecological Perspectives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371명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차이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학업 동기를 보였으며, 둘째, 독립변인들과 학업 동기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 동기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족건강성이, 여학생은 자아탄력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적합한 학업 동기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c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A total of 371 student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and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academic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However,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strong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Finally, the introduc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target children to improve learners' self-identity and parent-child or teacher-student communication programs are necessary to enhance academic motivation.

Keywords : Academic Motivation, Self-resilience, Family Strength, Sschool Life Satisfaction, Middle School Student

1. 서론

청소년의 초기에 해당하는 사춘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만 10세~13세경에 시작된다[1].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발달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독립 요구가 증가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므로 생의 어느 시기보다 적

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2]. 그 중 중학교 2학년은 '중2병'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내적 혼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성인기에 진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수행 과업 중 하나는 학업으로, 학업의 성공적인 성취 여부는 개인의 자아인식과 성

본 연구는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Hyuk-jun Moon(Catholic Univ.)

Tel: +82-2-2164-4114 email: mhyukj@catholic.ac.kr

Received July 16, 2018

Revised (1st August 20, 2018, 2nd August 29,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취감, 미래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학구열로 인해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밝혀져[3] 이 시기에 발생하는 학업적 부담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4,5]을 살펴보면, 학업 동기와 학업 성취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습 효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업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업 동기(academic motivation)란 학습 활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열심히 하려는 경향[6]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업적 활동을 모색하여 학업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다[7]. 이처럼 학업 동기는 학습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계획세우기, 목표에 집중하기, 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상위 인지적 인식, 새로운 정보에 대한 능동적 탐구, 피드백의 명확한 지각,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과 만족,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는 것 등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8].

학습자 변인은 학업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점 외에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학업 동기에 영향을 주는 자아탄력성과 학업 동기와의 관계를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말한다[9].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우울이나 불안에 취약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정서로 세계에 동참하고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자원을 활용한다[10].

국내연구에서도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11], 학업에 있어서도 지적인 성취도가 높고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

학업 동기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내적 요인 외에 가정 환경, 학교 환경과 같은 외적 환경 변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간은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차적인 사회화를 수행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와 가족 문제의 해결과 예방 차원에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이라 함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유대 등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가족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원 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된다[13].

현대 사회에서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14,15]을 통해 청소년과의 깊은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을 밝힌 소수의 연구[16,17]가 있으나 학업 동기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은 청소년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업 성취 관련 연구결과[18]를 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업 성취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학업 성취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Ju[19]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Choo와 Lim[20]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부모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매개하며 양육태도, 학업지원행동과 같은 가정의 사회적 자원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강조하였다.

가정 환경 이외에 청소년에게 중요한 환경요소의 하나는 학교이다. 학교는 청소년의 생활범위가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곳이며, 성장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장소이다. 또한 교사와 친구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일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학생 자신이 지각하는 학교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학생의 학업 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관련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학생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습자는 자아존중감, 학습 동기,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반대로 또래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스트레스 및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우울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업 동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제하에 청소년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을 동시에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녀의 학업 동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학업 동기 간에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한 377명이 최종 대상이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210명(55.7%), 여학생은 167명(44.3%),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8명(2.1%), 중상 123명(32.6%), 중하 225명(59.7%), 하 21

명(5.6%),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 265명(70.3%), 전문대졸 20명(5.3%), 대졸 65명(17.2%), 대학원졸 9명(2.4%), 무응답 18명(4.9%),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300명(79.6%), 전문대졸 10명(2.7%), 대졸 45명(11.9%), 대학원졸 4명(1.0%), 무응답 18명(4.9%),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270명(71.6%),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93명(24.7%), 무응답 14명(3.7%)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 동기

학업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Yang[24]의 성취가치 문항, Midgley 등[25]의 목표지향성 문항, Kaplan과 Maehr[26]의 학업효능감에 관한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Moon[27]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속달목표를 지향하고, 학업을 가치롭게 여기며,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2.2.2 자아탄력성

Atsushi 등[28]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Min[29]의 자아탄력성 측정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의 3개 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2.2.3 가족건강성

한국 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Eo와 Yoo[30]가 제작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 경향,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경향,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족구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4개 영역,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2.2.4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Kim[31]이 제작한 학

교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 환경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사회적 지지 만족감이 포함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2.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설문지 문항의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여부와 설문 작성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여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학업 동기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업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여학생($M=68.13, SD=13.98$)이 남학생($M=59.48, SD=17.25$)보다 높은 학업 동기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Table 1. Academic Motivation Differences by Sex (N = 377)

	Male (n=206)	Female (n=165)	t
	M(SD)	M(SD)	
Academic Motivation	59.48(17.25)	68.13(13.98)	-5.34***

*** $p<.001$

3.2 성별에 따른 변인들과 학업 동기와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와 중학생의 학업 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업 동기는 학교생활만족도($r=.31, p<.001$), 가족건강성($r=.22, p<.01$)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업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 동기는 가정의 경제수준($r=.15, p<.05$), 부모교육수준($r=.20, p<.05$), 모교육수준($r=.20, p<.05$), 자아탄력성($r=.18, p<.05$), 학교생활만족도($r=.36, p<.001$)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고, 부모교육 수준이 높으며, 자아탄력성이 높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 = 377)

	Academic Motivation	
	Male	Female
	r	r
Mother's Work Status*	-.03	-.05
Father's Educational Level	.12	.20*
Mother's Educational Level	.04	.20*
Family Income	-.06	.15*
Self-resilience	.11	.18*
School Life Satisfaction	.31***	.36***
Family Strength	.22**	.10

* $p<.05$, ** $p<.01$, *** $p<.001$

*0= No Work 1=Work

3.3 학업동기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VIF(분산팽창계수)값은 1.095-3.313으로 10 이하였으며, TOL(공선성허용도)는 .354-.942로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Durbin-Watson

검정통계량은 2.001-2.02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업동기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beta=.25$), 가족건강성($\beta=.20$)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남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3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p<.001$).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만족도($\beta=.24$)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건강성 대신에 자아탄력성($\beta=.18$)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모형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3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ors of the Academic Motivation ($N = 377$)

	Academic Motivation	
	Male ($n=206$)	Female ($n=165$)
	β	β
Mother's Work Status*	-.01	-.08
Father's Educational Level	.05	.11
Mother's Educational Level	.03	.09
Family Income	-.02	.11
Self-resilience	.10	.18*
School Life Satisfaction	.25**	.24**
Family Strength	.20*	-.11
<i>F</i>	11.78***	7.64***
<i>adj R</i> ²	.37	.33

* $p<.05$. ** $p<.01$. *** $p<.001$

*0= No Work 1=Work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차이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학업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학업 성취가 남학생의 학업 성취보다 높다는 선행연구들[32,33]을 지지한다. 즉, 높은 학업 동기가 학업 성

취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성별에 따른 학업 동기 와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독립변인들과 학업동기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과 부모의 학력 수준이 학업 동기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을 포함한 발달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34,35]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가정 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19,20]을 통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교육 성취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높은 학력과 소득은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교육에 대한 경제적 투자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 자녀의 학업 동기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 기회나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학업 동기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족건강성이, 여학생은 자아탄력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건강성에 대해 논의하면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전반, 자녀의 심리상태, 친구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기인 자녀와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을 겪게 되지만[2]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Kim[36]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가정 환경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상호 간에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와 부모와 자녀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스트레스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외에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학업효능감에 있어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37], 부모로부터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성취 동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38]. 따라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

원 및 청소년기 자녀와의 효율적인 대화 방법,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 동기와 가족건강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이 여학생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39]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 자아효능감, 자신감, 자아존중감 요인이 영향이 있으므로 보고된 결과와는 일맥상통한다. Jo와 Lee[32]의 연구에서도 학업 성취는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효능감과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특징이 있어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40]로부터 학업 동기와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 동기 향상을 위한 자아탄력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성별에 관계없이 학업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수환경 특성 모두와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결과[41,42]와 교사-학생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들[26,27]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전반적인 교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 동기와의 깊은 연관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 시설, 신뢰로운 교사와의 관계, 원만한 교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지역이 수도권 특정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결과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동기를 판단하는데 횡단 연구가 아닌 종단 연구와 구체적인 경로분석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향

후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의 응답에만 기초하였기에 학습자들의 판단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에 의한 연구 자료의 활용으로 보다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 동기 관련 변인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적합한 학업 동기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H. K. Cho, J. C. Kim,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ighth Grade Syndrome Scale(EG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4, pp.281-309, 2017.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17.04.24.4.281>
- [2] M. R. Lee, "Daily Life Activity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 to Stres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0, No.1, pp.69-84, 2002.
- [3] M. S. Ki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Korean Childre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220, pp.14-26, 2015.
- [4] E. S. Mun, C. H.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17, No.2, pp.271-288, 2003.
- [5] D. H. Ahn, J. A. Kim, S. Y. Hwang, "Perceived Competence, Family Processes, School Climate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19, No.4, pp.1199-1217, 2005.
- [6] A. E. Woolfolk, *Educational Psychology*(7th ed.). Boston: Allyn & Bacon, 1998.
- [7] J. E. Brophy, *Motivating Students to Learn*(2nd ed.). Mahwah, NJ: Erlbaum, 2004.
- [8] E. J. Lee, "The Relations of Motivation and Cognitive Strategies to Flow Experienc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15, No.3, pp.199-216, 2001.
- [9] J. H. Block,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1980.

- [10] L. P. Hernandez,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93.
- [11] M. H. Jung, "The Relationship among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Children's Friend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 [12] M. S. Koh, "Relations of Ego-Resiliency, Decision Making Style, and Attributional Style.-With Attachment and Life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 [13] Y. J. Yun, M. S. Lee, "The Influence of Family Health on the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5, No.2, pp.105-122, 2007.
- [14] G. S. Yoo,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Focusing on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9, No.2, pp.25-42, 2004.
- [15] S. M. Yang, "A Study on the Relative Happiness through Gender in Rural Couples and the Effect of Family Healthi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9, No.2, pp.153-172, 2004.
- [16] M. J. Park, K. A. Hwang, "An Impa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0, No.2, pp.43-51, 2007.
- [17] Y. J. Nam, T. Y.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4, pp.47-71, 2009.
- [18] K. H. Kim,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es on Academic Attainment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4, pp.265-289, 2006.
- [19] P. E. Davis-Kean,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9 No.2, pp.294-304, 2005.
DOI: <https://dx.doi.org/10.1037/0893-3200.19.2.294>
- [20] S. Y. Choo, S. M.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Income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s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3, pp.497-512, 2007.
- [21] K. S. Kim, "The Effects of Teacher Expectation and its Change on Students' Achievement",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54, No.2, pp.95-121, 2006.
- [22] H. Jeon, H. D. Cho, H. J. Cho, "The Mediation Effect of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 Relationship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a Longitudinal stud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No.5, pp.171-192, 2010.
- [23] M. K. Choi, H. S. Doh, "The In-depth Interview of Victims Who Has Experience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9, No.2, pp.31-46, 2001.
- [24] M. H. Yang,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25] C. Midgley, A. Kaplan, M. Middleton, M. L. Maehr, T. Urdan, L. H. Anderman, E. Anderman, R. Roese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Assessing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3, No.2, pp.113-131, 1998.
DOI: <https://dx.doi.org/10.1006/ceps.1998.0965>
- [26] A. Kaplan, M. L. Maehr, "Achievement Goals and Student Well-Be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4, No.4, pp.330-358, 1999.
DOI: <https://dx.doi.org/10.1006/ceps.1999.0993>
- [27] E. S. Moon,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 [28] O. Atsushi, N. Hitoshi, N. Shinji, K. Motoyuk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Vol.35, pp.57-65, 2002.
- [29] D. I. Min,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National University, 2007.
- [30] E. J. Eo, Y. J. Yoo,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3, No.1, pp.145-156, 1995.
- [31] J. Y.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National University, 2007.
- [32] H. I. Jo, N. Y.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go-resili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No.6, pp.1-20, 2010.
- [33] J. E. V. Lloyd, J. Walsh, M. S. Yailagh, "Sex Differences in Performance Attributio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 If I'm so Smart, Why Don't I Know It?",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Vol.28, No.3, pp.384-408, 2005.
DOI: <https://dx.doi.org/10.2307/4126476>
- [34] D. L. Duboris, S. K. Eitel, R. D. Felner,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pp.405-414, 1994.
- [35] S. A. Small, T. Luster,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No.1, pp.181-192, 1994.
DOI: <https://dx.doi.org/10.2307/352712>
- [36] W. Y. Shin, H. A. Kang, "The Effects of Poor Adolescents'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5, No.4, pp.57-87, 2008.

- [37]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Stress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5, No.3, pp. 129-148, 2013.
- [38] J. H. Moon, J. S. Baik,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0, No.3, pp.39-50, 2012.
- [39] J. K. Kim,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elf-efficacy,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5.
- [40] A. Y. Kim, J. E. Ch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eacher-efficacy and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7, No.2, pp.25-43, 2003.
- [41] A. Assor, H. Kaplan, G. Roth, "Choice is good, but relevance is excellent: Autonomy enhancing and suppressing teacher behaviours predicting students' engagement in schoolwork",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2, No.2, pp.261-278, 2002.
DOI: <https://dx.doi.org/10.1348/000709902158883>
- [42] S. G. Rivkin, E. A. Hanushek, J. F. Kain, "Teachers, Schools, and Academic Achievement", *Econometrica*, Vol.73, No.2, pp.417-458, 2005.
DOI: <https://dx.doi.org/10.1111/j.1468-0262.2005.00584.x>

문혁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1999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부모자녀관계, 보육행정, 아동발달